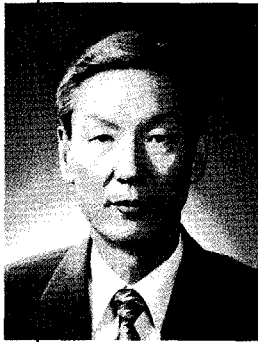


대한전선

21세기 초일류 전선·정보통신·금속 종합메이커



대표이사 유 채 준
대한전선 이사('59)/
이사('76)/상무('81)/

대한전선은 1955년 '산업보국'의 기치아래 창립, 지난 40여년 동안 국가경제발전과 궤를 같이 해 온 우리나라 전선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이다. 현대식 제조설비를 갖춘 국내 최초의 전선메이커로서 대한의 신제품 개발역사가 그대로 우리나라의 전선역사를 대변할 만큼 업계 선도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오고 있다.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지금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전력 및 통신케이블사업을 주축으로 정보통신사업과 스테인리스 스틸, 알루미늄사업 등 금속소재사업에 이르기까지 활발히 사업영역을 확대해 회사의 면모를 일신해 놓고 있으며 '98년 1조 4037억원의 괄목할 만한 매출실적을 기록하였다.



회원사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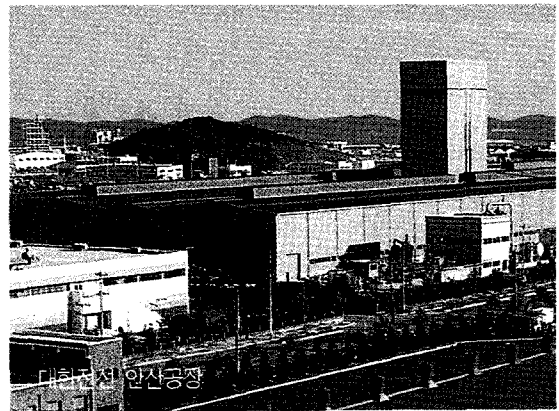
1996년 세계 최고 높이의 VCV 타워와 초고압케이블 전용공장을 준공함과 동시에 대폭적인 광통신케이블 생산설비를 확충함으로써 세계적인 전선회사로 부상하고 있다. 또 정보화사회 구축에 필수적인 리본형 광케이블, 10Gbps 동기식 광전송시스템, WLL, ADSL, WDM 사업 등 정보통신사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스테인리스사업의 극박판·컬러강판, 알루미늄사업의 자동차·항공기·컨테이너·알루미늄 캔소재 등의 고부가가치제품 개발을 통해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전선·정보통신·금속사업을 3개의 축으로 하여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다.

또한 1990년대 들어 현지화의 필요성이 급격히 대두되면서 1992년 중국 북경과 청도에 [대경통신전람유한공사]와 [청도청대전람유한공사]를 각각 설립하여 중국시장에서의 현지생산거점을 확보하였고, 1993년 인도 뉴델리에 한국·일본·인도 3국 합작으로 TDT Copper社를 설립하여 고품질의 황인동선을 인도 및 서남아 국가에 공급함으로써 글로벌경영의 중심에 서 있다.

초고압 케이블의 선구자 ... 송·배전용 케이블도 생산·공급 엔지니어링, 각종 케이블 부속재 사업에서 고도의 기술력 국내외서 인정

초고압사업

대한전선은 초고압케이블분야의 선구자로서 1976년 국내 최초이자 세계 아홉번째로 154kV O.F.케이블을 개발했으며, 기술개발, 품질향상에 끊임없는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154kV XLPE 케이블은 물론 345kV O.F.케이블을 국내 최초로 개발·공급하고 있다. 최근에 전력수요량의 증가, 송전전력의 대용량화 등으로 인해 초고압케이블의 수요가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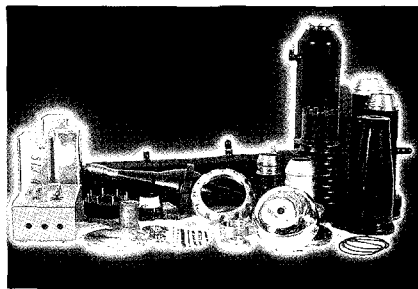
하고 있는 것에 때를 맞춰 세계 최고 높이인 지상 125m의 VCV 타워와 초고압케이블 전용공장을 준공하여 500kV 급 이상의 초고압케이블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됨으로써 세계 최대의 초고압케이블 생산업체로 발돋움하고 있다.

전력사업

대한전선은 심장에서 조직세포까지 발전소에서 실수용가에 이르는 모든 과정의 송전 및 배전용 케이블을 생산·공급함으로써 산업동력 전달체계인 국가 대동맥 구축에도 주역이 되고 있다. 345kV 가공송전선에서부터 옥내배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전력케이블은 물론 각종 특수용도의 제품도 개발하여 국가 경제발전단계별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오고 있다.

엔지니어링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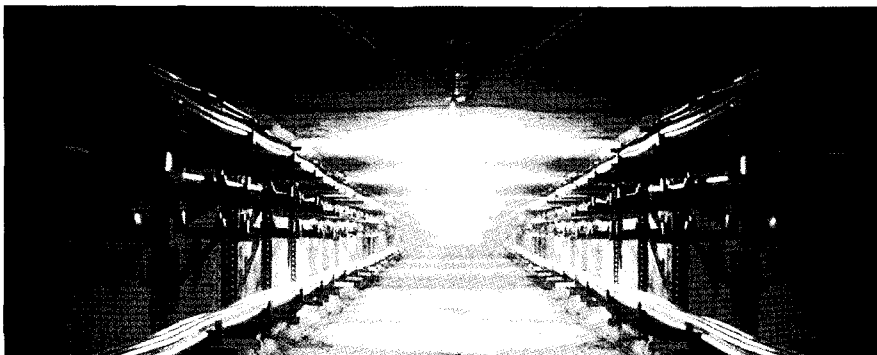
대한전선은 국내 최초의 초고압케이블 개발과 동시에 선로의 안전성 확보차원에서 설계·생산·시공·감리에 이르는 턴키방식의 일괄 수주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현재는 초고압 송전선로공사는 물론 광통신복합가공지선 포설공사, 무선통신 보조설비공사도 같은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다. 대한전선은 80년대 초부터 축적된 엔지니어링 능력을 바탕으로 해외시장을 개척, 중동·동남아 등 해외에서도 가공·지중·해저케이블 공사를 턴키베이스 방식으로 일괄 수주, 시공하여 고도의 기술력과 공사수행능력을 국내외에 과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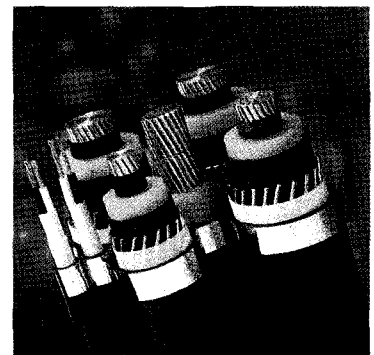
초고압 전력케이블 접속자재



초고압 XLPE 전력케이블



엔지니어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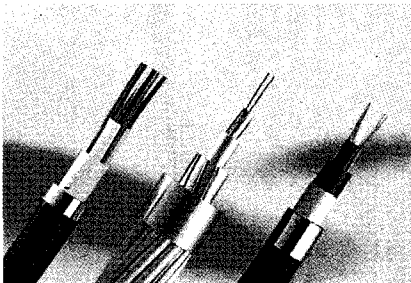


전력케이블

전력기기사업

초고압케이블의 신뢰성 확보와 완벽한 접속시공을 위하여는 고품질의 접속자재 확보가 선결과제이다. 대한전선은 고압에서 초고압용에 이르기까지 각종 케이블부속재를 생산·공급하고 있으며 초고압 GIS에 사용되는 에폭시절연물의 개발 상용화로 에폭시기술의 새장을 열고 있다.

멀티미디어 통신매체 신기원 이룩... 고품질의 통신케이블 국내·외 공급
국내최대 SCR ROD 생산능력 자랑... 에니멜선 생산으로 관련산업의 발전에 기여



광통신 케이블

광통신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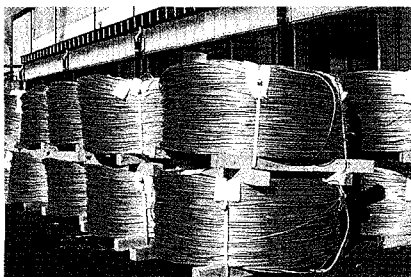
국내 최초로 자체기술에 의한 광섬유의 개발과 실용화를 통해 이른바 꿈의 통신이라 불리우는 광섬유시대를 열었던 대한전선은 부단한 연구개발로 전합성 VAD 공법에 의한 탁월한 성능의 제품을 생산하여 1988년 서울올림픽통신망에 공급하는 등 멀티미디어시대 통신매체의 신기원을 이룩했다. 관로용, 직매용, 가공용, 해저용, 난연용, 케이블 TV용 및 가입자용 등 다양한 형태의 광케이블을 생산·공급하고 있으며,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의 핵심인 리본형 광케이블도 개발하여 현재 상용화 단계에 있다. 또한 광관련제품에 대한 연구를 병행하여 성단용, 국내용, 옥내용 광케이블, 광점퍼케이블은 물론 광커넥터, 기계식 광접속자, 광커플러, 열수축슬리브, 광단자함, 광분배함, 광MDF, 광케이블 접속함 등도 생산·공급하고 있다.



통신케이블

통신사업

물질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더욱 다양해지고 복잡해진 현대사회는 빠른 시간내에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보의 전달체계가 인프라 중에서도 그 중요성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흔히 통신망을 국가의 신경조직에 비유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대한전선은 60년대 종이절연 스타프스 통신케이블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국가기간통신망 구성의 주역을 맡았으며, 그 후 PE 절연, PEF 절연, FOAM SKIN 절연케이블로 변천해 오면서 전송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현재는 국내보다 오히려 동남아·중동·아프리카 지역국가의 체신청에 고품질의 통신케이블을 공급, 세계적인 성가를 드높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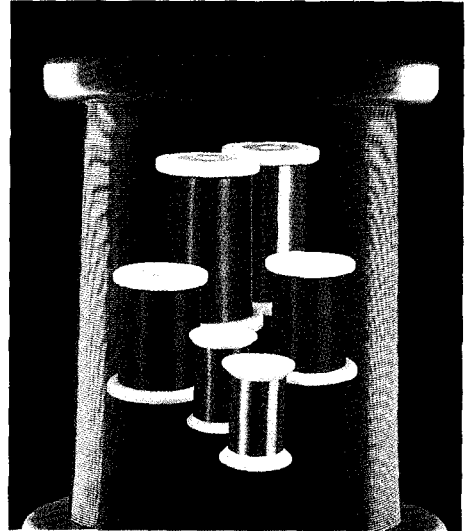
COPPER ROD

소재사업

국내 최대의 SCR ROD 생산능력을 자랑하는 대한전선은 전라인을 컴퓨터에 의해 자동으로 통제하고 각 공정에서 수집된 자료를 컴퓨터 중앙집중장치로 분석·관리함으로써 완벽한 품질의 로트를 생산하고 있다. 1998년 국내 최초로 동로트 2백만톤 생산실적을 기록한 바 있는 대한전선은 고품질의 소재를 공급함으로써 중소전선업체의 제품 품질향상은 물론 전선업계 전체의 공동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권선사업

국가전략산업인 중전기산업, 가전산업, 자동차부품산업 등의 성장·발전과 더불어 에나멜동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대한전선은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는 다양한 규격과 다양한 코팅재질의 에나멜선을 생산·공급하여 관련산업 발전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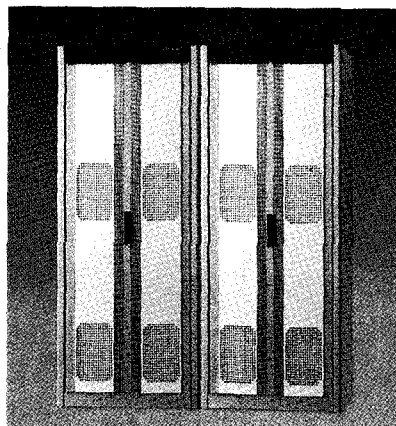


에나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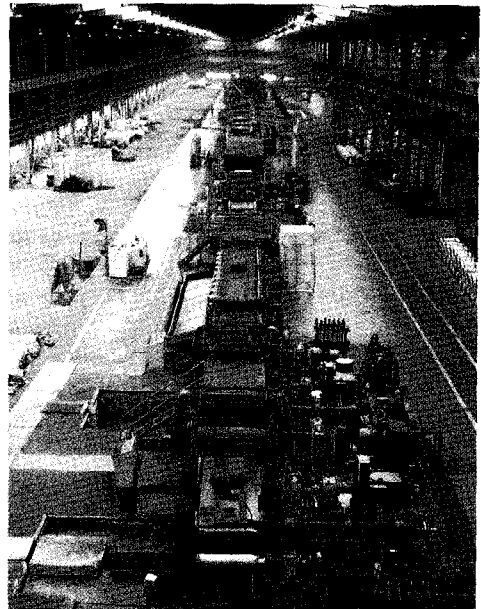
**동기식 광전송시스템 개발... 스테인리스 제품 70% 이상 수출
알루미늄 사업, 21세기 주력사업으로 육성**

정보통신사업

첨단 멀티미디어 시대에 대비해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초고속·대용량의 정보전송 요구에 부응하여 155Mb/s, 2.5Gb/s, 10Gb/s 급의 동기식 광전송시스템을 개발·공급하고 있다. 또 광대역 망중단장치(B-NT), 광대역 회선분배장치(BDCS) 및 광가입자 전송장치(FLC)를 개발하여 통신망의 고품질화 및 가입자 액세스망을 구축하는데 참여하고 있으며, 기존 동선가입자 선로의 고속 디지털화를 위한 비대칭 디지털 가입자회선(ADSL) 및 유



WLL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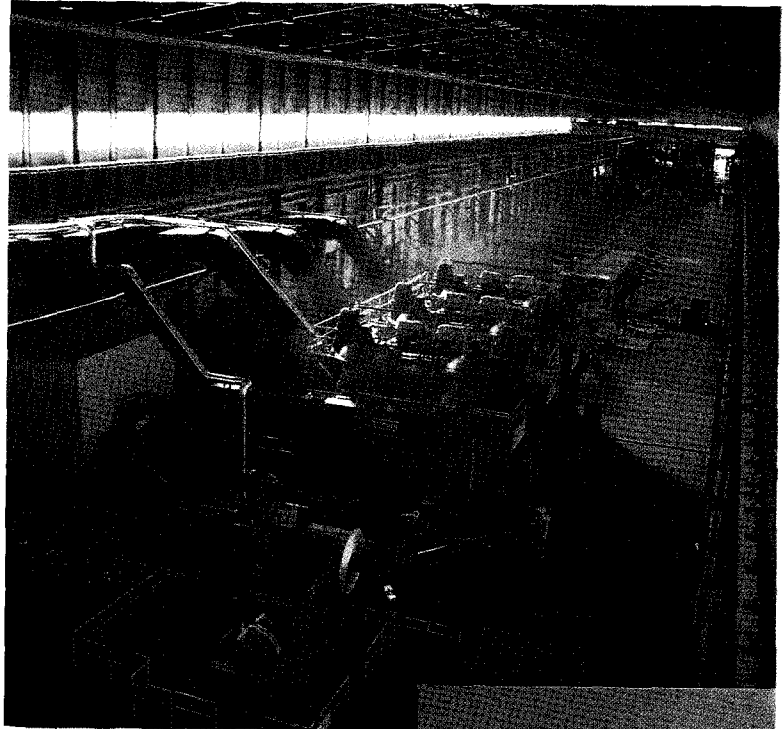
Annealing & Pickling Line(스테인리스)

회원사 소개

무선 복합통신망 구축을 위한 무선가입자망시스템(WLL)과 차세대 종합이동통신망(IMT-2000)의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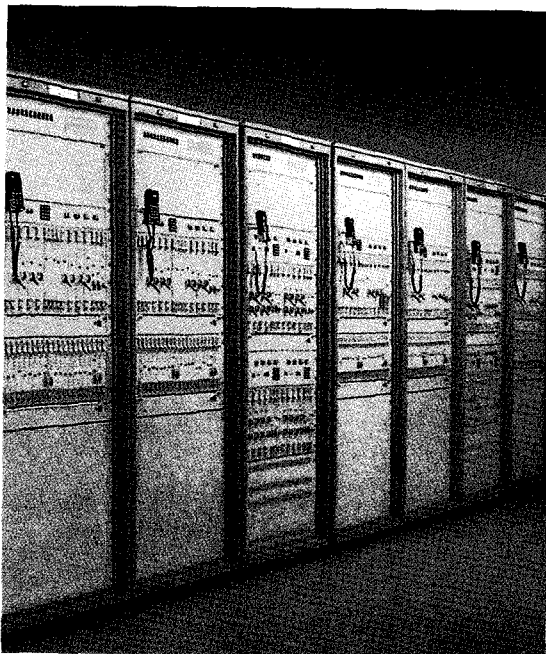
스테인리스 스틸사업

스테인리스 제품은 석유화학공업, 식품공업, 선박, 차량 등의 설비재와 건축 내외장재, 주방기기, 가전제품, 의료기기, 해양개발, 공해방지기기, 원자력산업 등 중공업에 걸쳐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특수 철강제품이다. 대한전선은 사업다각화의 일환으로 1994년 스테인리스 압연사업에 진출했다. 현재 생산량의 70% 이상을 수출, 해외시장에서 품질의 우수성을 널리 인정받고 있으며, 제작공정의



4-High 3 Stand Tandem Hot Rolling Mill

자동화와 과학적인 품질관리로 최고 품질의 스테인리스 스틸을 생산함은 물론 한차원 높은 고객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2.5Gbps 동기식 광전송시스템

알루미늄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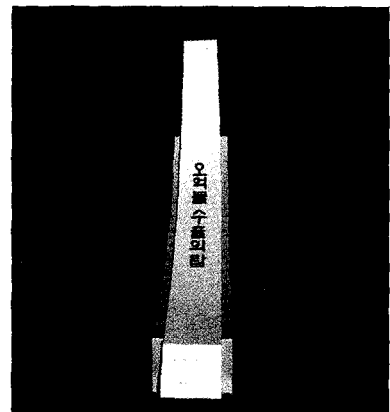
대한전선은 1995년 금속사업분야의 한축으로 알루미늄사업에 진출, 사업영역을 확대했다. 알루미늄은 21세기 금속으로 일컬어질 만큼 다양한 합금 신소재 개발여지가 많은 제품 특성을 가지고 있다. 현재 보편화되어 있는 호일재, FIN재, 알루미늄 캔재의 생산·공급은 물론 자동차·항공기·우주산업용 소재 등 고부가가치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

한전선은 알루미늄사업을 21세기 주력사업의 하나로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아래 가격과 품질 두 가지 측면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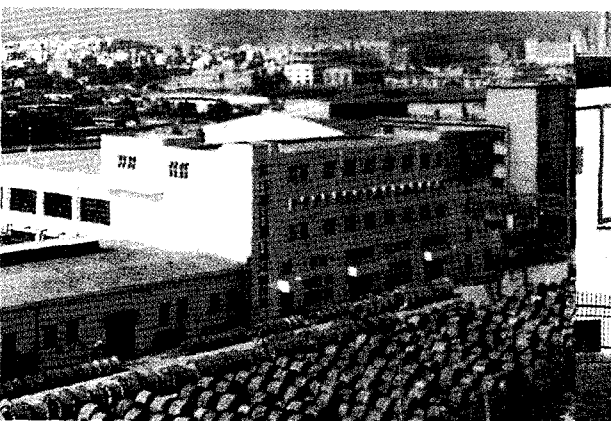
'90년대부터 수출시장에 박차... '97년 5억불 수출의 탑 수상
'고객이 원하는 품질' 목표 설정, KS, JIS, UL, CSA, ISO 9001 등 국제 규격 획득

해외사업

'97년 무역의 날 5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한 바 있는 대한전선은 '90년대 초부터 해외중시의 경영방침아래 수출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해 왔다. 최근에는 동남아·중국·중동 등 지역적 편중현상을 보이고 있는 수출구조를 대폭 개선하여 시장을 다변화하는 한편 고부가가치 제품수출에 주력하여 수익성 향상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해외영업으로의 인력 전진배치와 프로젝트별 전담지원 팀제를 설치·운영하는 등 업무의 최우선 순위를 해외시장에 두고 있으며, 그 결과 '98년 6억불을 상회하는 수출실적을 기록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대한전선은 올해 수출목표를 전년 대비 15% 신장한 7억불로 잡고 전사적인 수출지원 체제를 계속 가동해 나갈 방침이다. 또 중국에 소재한 2개 현지법인을 통해 중국시장은 물론 인접국에까지 시장영역을 확대하고 인도의 합작법인인 TDT COPPER社를 수출 전진기지로 활용, 서남아 지역 시장개척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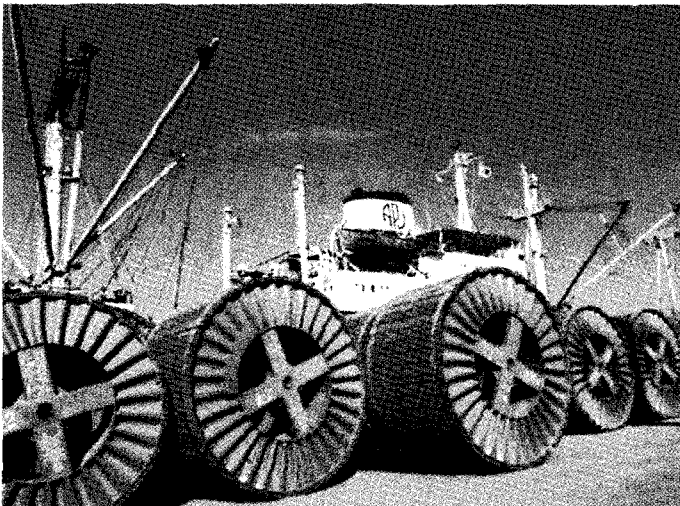
'97 제34회 무역의 날
5억불 수출의 탑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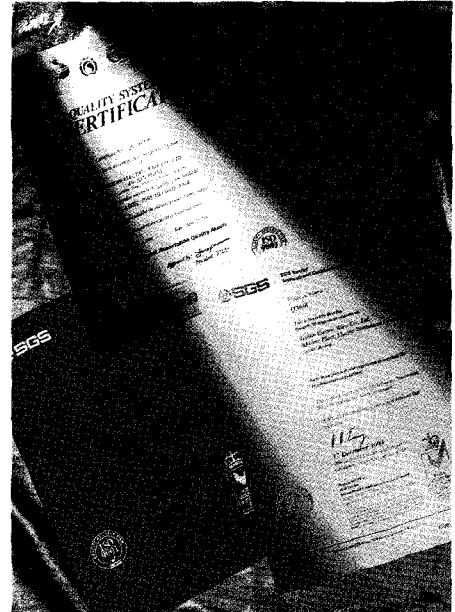
중국 청도 청대전람 유한공사



인도 TDT COPPER사



수출장면



ISO 인증서(품질경영)

품질경영

원재료로부터 최종제품에 이르기까지 쏠공정을 통해 대한전선은 품질목표를 '고객이 원하는 품질'로 설정해 놓고 있다. 품질경영활동을 전개, 품질의 우수성 확보와 함께 제품의 신뢰도를 극대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KS, JIS, UL, CSA 등의 국제규격 취득은 물론 미국 플랭크린 연구소의 LOCA, KEMA TYPE TEST 등에 합격하여 세계 수준의 품질임을 입증한 바 있다. 또한 '93년에는 국내 전선업계 최초로 전선 전품목과 정보기기부문이 ISO 9001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95년 스테인리스 스틸부문이 ISO 9002, '96년 전력기기부문이 ISO 9001 인증을 획득, 고객만족 경영체제를 확립해 놓고 있다.

회사연혁

- | | |
|-------------------------------|------------------------------|
| 1955 창립 | 1992 중국 합작법인 설립(북경,청도) |
| 1964 전선류 KS마크 표시허가 국내최초 획득 | 1993 인도합작법인 TDT COPPER社 설립 |
| 1968 기업공개 | 1994 스테인리스스틸 사업개시 |
| 1974 전선류 UL 및 CSA규격인증 국내최초 획득 | 1995 알루미늄압연 사업개시 |
| 1975 안양전선공장 준공 | 1996 신 VCV타워 및 초고압케이블 공장 준공 |
| 1976 154kV O.F케이블 국내 최초 개발 | 1997 제34회 무역의 날 5억불 수출의 탑 수상 |
| 1977 광통신케이블 국내 최초 개발 | 1998 국내 최초 동로트 2백만톤 생산 |
| 1983 초고압케이블 공장(VCV) 준공 | |